

지스트림 사용자 불편 가중

〈상용소프트웨어 실행 프로그램〉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동시접속 늘자 ‘버벅’ 대

최대 접속자수 넘기면 어떻게 하나… “대대적으로 보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솔루션인 지스트림(Z!Stream)이 제주대 내에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키고 끊김이 자주 발생하는 등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이 커지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스트림은 PC에서 한글, MS오피스 등과 같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도 서버(메인컴퓨터)에 등록돼 있으면 이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다.

현재 제주대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불법 상용소프트웨어 단속 강화에 대비해, 라이선스가 확보된 업무용 PC를 제외하고는 그 외 PC에 설치된 불법 상용소프트웨어를 일괄 삭제 조치한 상태다. 그에 따라 지스트림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여러 PC가 실시간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스트림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경우, 서버망에 의존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해 사용했던 방식보다 이용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김현아(사회학과 2)씨는 “지스트림을 여는 방식이 인터넷에 의한 것이고, 계속 지스트림을 켜놓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사용하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지는 경우도 있어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정옥(독일학과 2)씨는 “지스트림으로 포토샵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 기능에 제한이 걸려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차라리 학교 측에서 정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스트림은 한정된 서버망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동시접속 이용자 수가 제한된다. 한글(2002, 2007)은 최대 300명, 한글 2004는 200명, MS오피스 2000은 150명, MS오피스2003, 2007은 300

명, 포토샵(7, CS3)은 50명, 일러스 트레이터 10은 5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보통신원에서는 예산 문제로 모든 컴퓨터에 정품 사용을 하지 못해 지스트림의 불편한 부분을 고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경철(정보통신원) 실무관은 “100% 정품을 사용하면 가격 부담이 커 정품과 지스트림을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자수 제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주에 관련 업체와 함께 해결할 예정”이며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는 지스트림과는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컴퓨터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끊김현상과 같은 문제는 다음주에 관련 업체와 함께 해결할 예정”이며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는 지스트림과는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컴퓨터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스트림의 일부 기능이 안 되는 것은 윈도우7 64비트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 부분은 10월 경 대대적인 보완 작업을 벌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열려… “벤처기업 지원 늘려야”

‘창업선도대학 발대식 및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가 지난 1일 해양과학대학 4호관 오션홀에서 열렸다.

창업진흥원(원장 백두옥)이 주관하고 제주대 창업지원단(단장 조경호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허항진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예비기술창업자, 창업동아리 학생, 창업강좌 수강 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국회 강창일 의원, 송중호 중소기업청장, 서승원 중소기업청 차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조경호 단장은 ‘제주대가 생존력을 갖춘 선도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조 단장은 비전달성을 위해 젊은 창업가 친화형 창업 환경 구축과 선도적인 창업 라이프 사이클 창출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발대식에 이어 송중호 청장과 함께 하는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가 열려

행사 참석자와 청장 간의 질의·답변 형식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청년 창업을 통해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는 “청년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 조달력이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원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지아 수습기자

	기획 4 특성화 사업단 현장 제주씨그랜트사업단		사회 6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0> 정제환씨		문화 8 평범한 직업은 가라! 이색직업을 찾아서
--	--	---	---	---	---

인니 보고르 농업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제주대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농업대(총장 해리 수하르 디안토)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허항진 총장과 보고르

농업대 아나스미프타 파우즈 부총장, 아리프 사트리야 생태학부장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교수·연구

진·직원·대학원생·학부생 교류와 연구 프로그램의 공동수행, 학술교류 등을 추진기로 했다.

한편 보고르 농업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1963년에 설립됐다. 학생은 2만 2700여명이며 9개 단과대학이 있다.

사 령

오성욱(국어국문학과 1)
성지아(언론홍보학과 1)
윤신혜(화학과 1)
고선주(생활환경복지학부 1)
6월 1일자로 수습기자에 임명함

“나도 아라스타… 캠퍼스 곳곳에 젊음의 합성이 울렸다”



지난달 31일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공일이 대동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도 아라스타’에서 김성훈(경영학과 3)씨가 열창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수익 1%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 도와 쓰레기 처리 등 문제 여전… 귀갓길 교통 불편 심각

‘이공일이 아라대동제’가 지난 달 29일부터 3일간 한라터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20대의 공간·나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동제는 우선 공감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동제를 주최한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정준호)는 주점과 부스에서 얻어진 수익 1%와 스폰을 받고 남은 내역 전부를 지난달 31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제주대의 어려운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

다. 부스에서는 향수만들기와 뷰티숍, 팔찌만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다.

매년 지적되던 잔디 훼손 문제는 부스를 기존 야외음악당에서 한라터로 옮김으로써 훼손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에는 사회과학대학강당에서 카가오톱 CEO 이석우 공동대표의 강연이 열렸다. 잔디광장에 마련된 메인무대에서 는 댄스동아리 CROW의 공연, 우리 과 장기자랑, 나도 아라스타가 열려 학생들의 끼를 뽐내는 장이 되었다.

또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가 준

비한 일반학생 3명의 휠체어 일일 체험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여럿 보였다. 우선 매년 축제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여전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따로 마련하면서 분리수거 문제가 개선됐으나, 한라터 옆 식수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이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환경미화 아주머니는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마련함으로써 치우기가 한결 수월해졌지만, 지난해에 비해 치워야 할 쓰레기양이 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증편된 버스로 부족함에도 택시도 오지 않아 귀갓길은 교통정체를 방불케 했다.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걸어가거

나 학교에서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었다. 일어일문학과와 한 학생은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증편된 버스에 타려 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탈 수 없었다”며 “내년부터는 버스편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질서문제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연예인공연 때 일부 학생들이 주점에서 의자를 끌고 와 무대를 관람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점 천막위에 올라가기도 했다.

대동제를 준비한 정준호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대동제와 달리 비가 오지 않아 학생들과 도민들의 참여가 높았다”며 “특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호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신혜 수습기자

제주도의 심장 제주일보

도민과 함께 달려온 67년 도민과 함께 새 67년을 뚫다

제주일보·방송



대한민국 광복 67년 · 제주일보 창간 67년

1945년 조국의 광복과 함께 창간된 제주일보는 전국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어 세 번째로 창간된 전통지로, 전국 지방사 중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창간 67년의 연륜으로 신문·방송겸영 뉴미디어산업의 선도적 역할과 변화를 주도하고 제주의 백년비전을 올곧게 제시하는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새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제 주 일 보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령리 2599-2번지
대표전화 (064)740-6114, FAX.(064)742-2004
http://www.jejuilbo.com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05호
대표전화 (02)784-3461, FAX.(02)786-2761

사설

대학의 사명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 대학이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으면서 요즘 교내외에서 여러 기념행사들이 한창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양적 질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대학진학률이 80퍼센트를 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학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우리대학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동시에 제주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 보고서에서 ‘대학교육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학진학률과 인적자원 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이른바 과잉 대학진학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9조원이며, 그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1퍼센트 상승의 기회를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대학 진학이 단지 향후 개인의 미래소득, 결혼조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투자에 불과하다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대학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대학과 기업의 사명은 달라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것도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반면에 대학은 지금 잘 나가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인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학을 인수하여,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국립대학들마저도 거기에 장단 맞춰서 당장 학생 취업률이나 교수 논문 편수 등의 단기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이 없이 바로 코앞의 성과에만 올인하는 한 국가의 미래가 어찌 될지 걱정이다. 그리고 국민 개인들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당장 취업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학도 이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사회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학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책임이 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주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우리 대학도 단기간 성과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가와 제주지역의 장기 비전과 보다 큰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 대학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지금 제주지역의 빼아픈 현안문제에는 눈 감은 채 오로지 개인적 관심사인 취업과 평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보면 ‘이 시대에 대학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학에 그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대학민주화 위해 학장 임명제 개선을

교육과학기술부의 반강제적 조치에 의해 많은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3월 21일의 교직원 찬반 투표와 평의 원회를 거쳐 ‘총장 후보 직선 추천제’를 폐지하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 선정’키로 학칙을 개정했다. 그 후속 조치로 얼마 전부터 교수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므로 머지않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총장 공모제의 모색과 함께 단과대학 학장 임명 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총장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타의에 의해 학장 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긴 했어도, 현재와 같은 임명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장이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경청하고서 임명한다고는 하지만, 총장의 의견수렴 방식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학무회의에서 대학본부의 정책에 대해 되짚어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학부위원은 대개 선출직 학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총장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단과대학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이었기 때문에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총장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의견을 들어본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낙점에 의해

임명되는 현재의 학장들은 과거의 선출직 학장처럼 대학본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사회든 적절한 비판과 견제의 장이 마련 되었을 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이뤄져 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장 임명 방식을 이대로 두어선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교수회에서 단과대학 학장 공모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현실적인 공모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 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장 선거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던 지난해에 이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 대학본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교수회가 적극 나서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학장 임명을 둘러싼 향간의 잡음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교수회에서 총장 공모제와 더불어 학장 공모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학장 공모제가 더 시급하다. 총장보다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학장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학장 임명제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마땅하다. 대학민주화를 위해서도 현재의 임명방식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특정 카드만 사용가능... 애물단지 전락한 ‘무료복사기’

총학 공약으로 4월 설치
“도입 당시 문제점 몰랐다”
당장 해결은 어려워

이공일이 제44대 총학생회 공약으로 지난 4월 학생회관 2층에 설치한 무료복사기가 RFID기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재학 중인 A씨는 무료복사기를 이용하기 위해 학생회관을 찾았으나 복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총학생회는 도입 당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줄 몰랐다는 입장이 다. 정재우 부총학생회장은 “무료복

사기 도입을 준비하면서 교통카드 등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나중 에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 등 은행의 일부 신형카드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학교 내에서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해당 기업과 논의를 해본 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최대한 빨리 고쳐 2학기 중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총학생회 공약인 만큼 도입 후 학생들이 쉽



학생회관 2층에 설치된 무료 복사기에 RFID카드를 댔으나 인식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학생들이 사용

수 있도록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학생회관 주변 소음으로 고통... 근본 해결책 없어

수업·연구활동에 피해 커
“앰프·악기 사용 금지 등
피해 최소화해 노력”

학생회관 앞 한라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사회과학대학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5월은 평일 체육대회와 대동제 등의 축제가 열리고 있어 소음문제가 더 심각했다.

한라터는 학생회관 간이공연장과 운동장 주변을 지칭한다. 여기에 학생들이 운동하기 위해 농구장, 족구장을 만들었지만 이곳이 점점 동아리 행사와 대동제를 열고 체육대회의 일부분을 소화하면서 소음문제가 유발됐다.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행사 소리는

사회과학대학까지 잘 들리지 않아 별 문제없다. 한라터에서 진행되는 종목들이 소음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특히 사과대 구성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민성(인문홍보학과 2)씨는 “한라터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최소한 수업시간 만큼은 소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원(행정학과) 교수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수업, 연구, 논문 작성을 모두 하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해서든지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라터 사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총학생회도 소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펼치

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소음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재우 부총학생회장은 “소음 문제를 막기 위해 한라터에서 앰프, 악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한라터 소음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행사와 수업권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석범(학생복지과) 실무관은 “한라터에서 열리는 행사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응원 소리를 줄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음을 줄여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양채류 사업단서 기업지원사업 공모

신제품 개발 분야 등

제주양채류 RIS사업단(단장 임상빈)은 오는 13일까지 제주산 양채류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품제조업체 및 원물 유통업체 다.

양채류 RIS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양채류와 같은 비교우위의 제주지역 특산품을 융·복합 산업화해 지역 신성장 동력

디자인 △품질점진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제주산 양채류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예정인 도내 식품제조업체 및 원물 유통업체 다.

양채류 RIS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양채류와 같은 비교우위의 제주지역 특산품을 융·복합 산업화해 지역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업체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13차 여름방학 초등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대상 : 90명(초등 3~6년)
2. 캠프기간 : 2012. 7.30(월)~8.10(금)(11박 12일)
3. 접수기간 : 2012. 6. 4(월)~6.30(토)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camp.jejunu.ac.kr> (회원가입→ 참가신청)
5. 참가비 : 980,000원(농협 954-01-024722)
 - ※ 할인적용(중복 불가)
 - ▶ 제주대학교 교직원 자녀(제대병원 포함) 10% 할인
 - ▶ 형제자매 참가자 10% 할인
 - ▶ 이전 FLI 캠프 참가자 10% 할인

☞ 외국어교육원 초등영어 Program 안내☞

- o 개설강좌 : Starter~Level 5(6단계)
- o 강좌시간 : pm 3:00~6:00(강좌별 월~금 1시간)
- o 모집인원 : 잔여인원 및 대기자 접수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ejunu.ac.kr>

제32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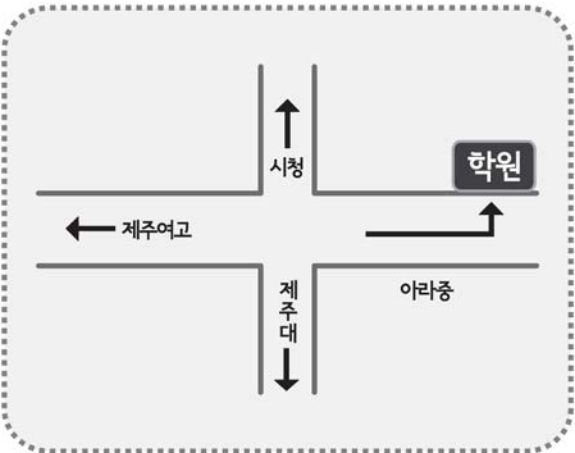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할 것.
5. 발표 : 제주대신문 872호(2012년 7월 4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개교 60주년 기념 연구소 통합학술대회 열려

지난 1일 ‘제주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각 연구소가 진행해온 제주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대 11개 연구소는 지난 1일 경상대학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및 강의실에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가졌다. 연구소 통합 학술대회는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허창진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대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때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창의적 정책파트로서의 대학 △지역산업과 경제의 견인자로서의 대학 △지역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국제교류를 선도하는 대학 등 4가지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우리 대학의 역할’로 제시했다.

허 총장은 “우리는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립거점대학 지위에 걸고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연구과제 발표는 A·B·C 3개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논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A팀(대회의실) △탐라문화연구원(글로벌 시대의 문화콘텐츠로서 영주심경에 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소(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연구)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제주지역 내 고용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연구센터 유치 연구) △사회과학연구소(협상기법 도입을 통한 제주도 화합행정체계 구축)

▲B팀(강의실) △평화연구원(제주 발전의 소프트파워로서 세계평화의 섬-평가와 발전 방향) △초등교육연구소(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현재와 미래) △인문과학연구소(학제간 협력을 통한 제주지역 인문학연구)

▲C팀(세미나실)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제



지난 1일 경상대학 대회의실에서 윤용택(탐라문화연구소) 소장이 ‘글로벌 시대의 문화콘텐츠로서 영주심경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주 생명산업 육성방안)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감귤연구와 석주명 박사 기념사업을 통한 연구소 위상 제고) △해양과학환경연구소(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제주양식산업 발전방안) △기초과학연구소(제주도 과학문화활동의 실태와 효율적 운영방안) 김명지 기자

강태선·오찬익씨 발전기금으로 각 1억여원 쾌척

강태선(블랙야크 회장·왼쪽)씨, 오찬익(전 재일관동제주특별자치도도민협회장·오른쪽)씨가 “후학 양성하는데 써달라”며 각각 1억여원의 성금을 제주대에 기탁했다.

강태선(재외제주특별자치도도민협회 총연합회장·블랙야크 회장)씨가 지난달 25일 개교 6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장학기금 1억원을 후학 양성에 써달라며 허창진 총장에게 전달했다.

강 회장은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제주대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대는 강 회장이 쾌척한 1억원의 발전기금을 ‘블랙야크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외국어교육원, 수강생수 전년대비 57% 상승 수강료 인하와 적극적 홍보의 효과 나타나

외국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특별강좌 프로그램이 올해 들어 수강생수가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2012학년도 1, 2차 외국어특별강좌와 토익특별반 수강생수가 634명으로 전년대비 같은 기간 230명이 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아웃도어 업계에서 토종브랜드 블랙야크를 자리잡게 한 기업가이다. 2011년 5월부터 제주대 겸임교수 활동 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서 오찬익씨는 지난달24일 대학발전기금 1억원과 500만원 상당의 도서를 제주대에 전달했다.

오 전 회장은 제주대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재일제주인센터 개관식 행사에 참석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이 기금은 재일제주인센터 운영기금으로 사용되며 도서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미래’ 교육·연구 등 자료로 활용된다.

오 전 회장은 지난 2006년에는 100만엔(당시 한화 800만원)을 기부하



는 등 지금까지 총 1억1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재일제주인 2세인 오 전 회장은 2009년 ‘김만덕 나눔쌀’ 모으기 500섬 기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일분지역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제주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재일본동경상공회최소 회장,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미하마의 대표이사로서 있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근 원장은 “외국어교육원 강좌에 대한 홍보와 수강생 혜택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외국어 실력을 쌓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어교육원은 특별강좌와 토익특별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수강신청을 받는다.

‘환경운동’ 대학생이 나섰다… Re Earth 출범

구호뿐인 환경운동 ‘No’
포스터 만들어 캠페인 벌여
대학에 환경정책 제안도



Re Earth의 구성원. 왼쪽부터 전호광(수의학과 2), 고예린(경북대 응용생물과학부 2), 김나영(관광경영 3), 안유니(관광경영 3), 박지영(무역학과 4), 강진선(관광경영 3)씨.

“페트병 음료수 먹고 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저희는 병뚜껑 안쪽에 압정을 부착해 감각 있는 생활용품으로, 병은 예쁜 꽃병으로 재활용 합니다.”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Re와 ‘지구’를 뜻하는 Earth를 합쳐 지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교내 환경관련 소모임 ‘Re Earth’가 활발한 활동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팀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리더 전호광(수의학과 2), 박지영(무역학과 4), 강진선(관광경영학과 3), 박현(국어교육과 2)씨 4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11명까지 구성원들이 늘어났다. 이 중에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경북대 학생도 함께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은 일정한 틀이 잡힌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참여하지만 저희는 1인 1의견 원칙인 토론회를 벌여 활동사항들을 정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활동은 제주의 자연가치를 재학생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팀은 한달에 한 번씩 한라생태공원, 거문오름, 사려니숲길 등에서 생태탐방

을 하고 있다. 탐방은 단순히 환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앞으로 더 많은 재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련 다큐멘터리를 함께 감상해 활발한 토론활동도 하며 8월에 개최되는 WCC 제주도 환경축전에 ‘재활용의 생활화’를 테마로 참가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내뿐만 아니라, 학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Re Earth’는 학생회관에 ‘당신 이 먹게 될 내일의 메뉴’란 포스터를 자체제작해 붙였다. 포스터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쓰레기를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 포스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회용품 사용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다고 밝혔다.

“교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통이 작아지더라도 세분화를 해서 재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친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환경 관련 교양수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교내 학생들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내의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화장실 수업을 절반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학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펜심 이용하기, 품클렌징 가위로 잘라 사용하기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이 원래 지구의 모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부터는 저희 ‘Re Earth’와 함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선주 수습기자

의전원 지역 인재 30% 우선선발

의학전문대학원(원장 홍성철)이 올해 수시모집에서 제주지역 고등학교 졸업 우수인재를 30% 우선 선발한다.

의전원은 국내 최초로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7년 과정의 ‘의학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전원은 내년 학사과정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 20명중 6명을 지역 학생들로 뽑는다.

지역 고교생 우선 선발은 우수인재의 도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말

현재 도내 고등학교 1~3학년에 재

학중인 학생들이 향후 4년제 대학 졸업 시점에는 제주대를 비롯한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 대학이 의과대학으로 복귀함에 따라 의전원으로 입학에 의사가 될 기회가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학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전원 입시는 종전대로 40명을 선발한다.

제주대는 석사과정도 예년에 비해 ‘제주지역학교 출신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으로 10명까지 확대한다. 제주지역학교 출신 성적우수자란 제주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말

김명지 기자



제12회 제주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열려

교육대학(부총장 최태희) 주최로 제12회 제주 어린이 동화구연대회가 지난달 5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40여명의 도내 초등학생들이 참가해 1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어린이들이 말솜씨를 자랑하고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이 대회는 매년 어린이날에 개최되고 있다.

부속시설 탐방 19. 사회봉사센터

“봉사하는 기쁨 느끼고 싶다면 사회봉사센터로 오세요”



지난해 7월 ‘필리핀 의료봉사단’이 필리핀 일로일로로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가운데 학생들이 풍선을 만들어 주고 있다.

최근 대학생에게 봉사활동은 하나의 문화다.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대학생활 중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해야할지 몰라 헤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2월 7일 설립된 사회봉사센터(센터장 김석중 학생처장)는 학생들에게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캠퍼스 봉사활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제주

평화봉사단 등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학생들이 쉽게 봉사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센터는 해외봉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해외봉사 주최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해외봉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사전면접과 서류점검을 통해 1차 선발한다. 또 1차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해외봉사에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센터는 아울러 대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연구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가 운영하는 ‘제주대 지역사회봉사단(가칭)’은 공부방 멘토링, 호스피스(간호), 집수리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에는 교내 동아리 10개팀, 총 244명이 참여한다. 특히 집수리 봉사에는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 봉사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지식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전공학과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대학 사회과교육전공(지도교수 류현종) 학생 33명 등 2개 팀이 참가한다.

이외에도 센터는 대학생 봉사팀들이 지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라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라봉사단은 제주공생원팀, 총아학생회 ‘여보세요’ 봉사팀 등

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8년에 창단된 제주공생원팀은 제주공생원의 환우를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병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총아학생회 봉사팀은 제주위탁가정지원센터의 위탁가정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같은 해 신설된 Happy Move 봉사팀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최하는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의 봉사단원이다. 이들은 제주YWCA와 연계해 다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김수연(학생복지과) 실무관은 “학생들이 해외봉사나 국내봉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도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적어 아쉽다”며 “사회봉사센터와 학교 홈페이지 등을 심분 활용해 봉사활동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지아 수습기자

사람들

김인영·임문범씨 자랑스런 자대인 수상

제1회 ‘자랑스런 자연대인’에 김인영(미국 버지니아텍 교수)씨와 임문범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 선정됐다.

김인영 교수(사진 위)는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버지니아텍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술지에 수십편의 통계학 분야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2010년부터 2년 연속 미국 과학재단의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교육·연구활동을 해왔다.

임문범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사진 아래)은 식물학과(생물학과 전신)를 졸업하고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물학과 동문회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해 동문들의 귀감이 됐다. 또한 우수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창희 동문 명예 박사학위 받는다

김창희(전 현대건설 부회장, 경영학과 76년 졸)동문

이 오는 26일 본관 회의실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김창희 동문은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오현고와 경영학과를 졸업, 1982년 현대차에 입사해 지방대 출신으로 그룹 부회장까지 올랐다. 김 부회장은 20여년간 자동차 영업을 담당해온 영업전문가로 2000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현대엔코의 대표이사로 일해 왔으며, 2011년 3월부터 현대건설의 경영을 맡았다.

강운영씨 우수 발표 포스터상 수상

강운영(에너지공학과 4)씨가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포스터상을 받았다.

강씨는 ‘울진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재생식 해양온도차발전의 사이클 해석’에 관한 포스터를 냈다. 이 포스터는 해양온도차발전 시스템의 최적 사이클과 작동유체를 분석했다. 강운영씨는 “아직 학생이라 준비하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김남진(에너지공학과)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선배의 도움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성화 사업단 현장 < 10 > 제주씨그랜트사업단

차세대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싱크 탱크’ 역할

‘취미-’ 물질하던 해녀의 발은 숨비소리. 예로부터 바다는 제주인들의 삶터였다. 바다에서 얻은 해산물은 고스란히 제주인들의 생명력이 되었다. 해양산업이 도민들의 일터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해양산업’이라고 하면 어민들의 해산물 수확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해양산업은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을 활용한 관광·레포츠산업을 비롯해 해양자연, 해양 신재생 에너지, 해양 생명공학 산업 등 다방면에서 펼쳐지고 있다. 제주씨그랜트사업단(단장 이병걸 토목공학과의 교수, 이하 사업단)은 제주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씨그랜트(Sea Grant) 사업은 바다(Sea)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Grant)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동시에 보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단은 지난 2009년도부터 국토해양부, 제주도, 대학으로부터 총 29억원을 지원받았다.

국제요트학교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제주해양 관련 조사연구·인력양성에 심혈

천혜자연 활용한 해양산업 성장 기대

사업단은 지역 해양관련 현안을 과제로 설정해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의 해양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지역 주민이나 산업체에 이전하며 해양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양교육, 홍보,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이 수행한 사업 중 ‘제주국제요트학교’는 수강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요트산업의 인재를 다수 키워냈다. 지난 2010년 3월 29일부터 김녕리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제주국제요트학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요트학교에서는 요트 이론과 실기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중등 요트팀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지역에서 요트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양시키고 있다. 김녕국제요트학교는 올해부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15일 안덕면 화순에서 개교한 ‘서귀포국제요트학교’도 사업단이 위탁운영하며 기술을 배양시킨 후, 향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지난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해양생태해설사과정’을 운영해 해양생태해설사 16명을 배출해냈다. 이밖에도 사업단은 해양동아리 발족·운영, 해양 예비전문가 취업촉진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제주 해양지질구조와 생태탐방, 전문 스쿠버다이버 양성, 초·중·고 아열



지난 2010년부터 김녕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요트학교’ 교육 현장.

를 수행했다. 풍력산업체를 건설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가장 적지인지를 알 수 없다면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문 교수가 개발한 풍력자원지도는 고해상도로 제주도 근해 바람모형을 구성해내며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풍력자원지도는 풍력산업 지역선정과 개발예정 풍력단지 자원평가에 활용된다. 또 최홍복(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추자도 주변 해양생태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 교수는 섬지역 관광객이 해양관광에서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추자도 등 섬지역의 해양관광 산업에 시사점을 던져줬다. 이 연구를 통해 사업단은 추자도 주민 설명회를 갖고, 관광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준백(지구해양학과) 교수는 ‘미세조류 활용에 의한 제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구했다. 미세조류는 미역·다시마 등 거대조류와 달리 크기가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 밖에 안되는 조류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세조류로는 클로렐라가 있다. 이준백 교수는 제주 자생 미세조류를 산

인터뷰 이병걸 사업단장

“제주가 해양시대의 리더가 돼야”

-제주에서 해양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도는 한국 해양영토의 약30%를 차지하는 해양을 안고 있는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더불어 제주 바다는 우리나라 무역·여객선의 80% 이상이 지나가는 해상 교통부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제주 바다가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발전은 더딘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도, 산업육성과 인재양성이 부족해 젊은이들이 해양산업 분야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주가 해양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씨그랜트 사업단은 제주의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업을 진행하며 겪는 어려움과 한계는.
“국토해양부와 제주도, 대학의 지원이 있었기에 사업단은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참여연구원들 사이에서 제주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제주도내에 해양산업의 대중화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낀다. 보통 ‘해양산업’이라고 하면 어촌계 등에 한정된 사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해양산업은 어민만이 아닌 제주도민 전체의 삶과 연결돼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 관련 시설물들이 제주에 많이 설립되면서 해양산업과 도민이 친



숙해지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제주 바다가 어민들만의 삶터가 아닌, 제주도민의 삶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산업 분야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해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제주 바다를 활용한 해양산업 개발·인력양성과 더불어, 제주의 청정 해역을 보존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 해역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라져가는 해양 생물을 위한 지역적 휴식년제도 점차 확대돼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제주 바다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씨그랜트사업단에서는 제주국제요트학교, 해양생태해설사, 청소년야영대해양캠프, 제주도비치클린업, 제주도해양수산발전계획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제주 해양산업 발전과 보존을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제주대가 해양산업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5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도전 함께하는 내일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토스트 하나로 3년간 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나의 이름을 건 토스트 가맹점이 전국에 300개에 이른다. 그러나 내 삶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다.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이다. 8남매였는데 집이 가난해 중학교 진학도 못했다. 열다섯 살에 무작정 경기도 성남으로 올라왔다. 배운 게 없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한정돼 있었다. 처음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다. 이게 아니라 싫어 자동차 정비공장에 취업하여 기술을 배우다가 다시 노동관으로 전전하는 말 그대로 용접공과 막노동의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공부를 해야겠다는 집념이 생겼다. 이때부터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시골서 자라 몸은 건강해서 마라톤 선수를 할 수 있었고, 1980년에 유치원 교사였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당시 변변찮은 직업도 없어 가정경제는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아내의 도움으로 야간대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자 아내가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때 내 손에 쥔 것은 고작 200만원이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 서울시장 뒤쪽의 무교동에서 토스트를 굽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토스트를 굽는 일을 시작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다. 아내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포장마차 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비참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장사를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오기 같은 것이 생겼다. 문득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

는 이유는 가난을 선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40이란 나이를 먹기까지 매일 잠을 싹껏 자는 것이 생활이었고, 게을러서 남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거지 근성에 젖어 남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이것을 끊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10시간 잠을 자고도 부족했으나, 당장 5시간으로 줄이고 습관들이기를 훈련했다. 그랬더니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다. 생각이 바뀌니까 이와 토스트 굽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이상 토스트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 우선 서울시장 롯데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자는 생각에 유니폼을 입었고, 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장사를 하면서는 늘 ‘어떻게 하면 손님이 기분 좋을까’를 생각했다. 미소 띤 얼굴에 큰소리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재료를 보다 신중하고, 좋은 것으로 바꿨다. 조미료와 설탕을 빼고 야채에서 단맛을 찾아보장하는 등 쉬지 않고 연구와 개발에 매달렸다. 혼자서 토스트를 굽고 돈까지 받는 게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셀프 계산대’를 만들기도 했다. 손님이 하나둘씩 늘어나자 무교동 주변 호텔에 묵었던 외국인의 아복을 팔았다.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듭해 해외 언론에까지 실릴 정도였다. 일본 관광객들의 입소문으로 한국여행 코스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NHK 방송 출연, 가이드북 게시 등 석봉토스트로 유명세를 탔다. 아쉽게도 정계엔 개발로 지금은 토스트 차가 없어졌다. 300개의 체인점이 있지만, 체인점비를 받지 않는다. 돈으로 따지자면 100억 이상이 된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성을 없앤다는 심정으로 고아원, 독거



“근면한 생활이 품에 배고

시간을 잘 활용하니

인생의 기적을 이뤘다”

노인 등을 돕는 일과 동시에 기꺼이 이런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 인생의 세가지 규칙이 나를 변화시켰다. ‘자신과 싸워 이겨라’, ‘나와 타인을 감동시키라’, ‘꿈과 비전을 세워라’. 내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성공을 이루기 어려웠다.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기다. 보통 사람들은 남과의 약속은 중요시하면서도 자신과의 약속은 적당히 타협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간 경영’의 중요성이다. 올해로 12년째 플래너를 쓰면서 하루를 잘게 쪼개 쓰고 있다. 부지런한 생활이 품에 배고 시간을 잘 활용하니 인생의 기적을 이뤘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가 되고 싶든가.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라. 인생을 바꿀 작은 습관을 갖고, 가슴 뛰게 도전하라.

창의적 사고를 위하여

신상훈 토킹스피치 대표

미래의 배우자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바로 손을 잘 씻는 사람이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을 잘 씻는 사람은 기본이 잘 된 사람이다. 작은 것부터 지킬 줄 아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야 한다. 또 잘 웃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서로 웃으며 격려하면 어떤 악재와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외모가 볼품이 없어도, 눈 딱 감고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골라야 분명 후회하지 않는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깔때기(funnel)형 인간이 되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한 후 자기색깔을 내면 성공할 수 있다. 같은 비가 와도 깔때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차곡차곡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반면 팔대 같은 사람은 맥날 비가와도 물이 모이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잘 된다. 학교생활에서도 ‘앞에 앉아라’와 ‘인사 잘해라’를 실천해야 한다. 앞에 앉는 학생은 잘 들어대는 사람이다.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의 절반은 성공한 거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난 언제 익을 건가를 고민하지 말자. 먼저 고개를 숙이면 나중이라도 익지 않을까. 일단 고개부터 숙여보자. 또 잘 들어대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주변에 학창시절 공부를 못하고 산만해서 매일 선생님께 꾸중을 듣던 친구가 있다. 지금은 버스 3000대 가진 사장이 돼 있다.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지만 잘 들어대는 것 밖에 없었던 여자 동기는 미용실 체인점 여럿을 거느린 여전한 사장이 돼 있다. 개그맨 박지선이나 신봉선이 잘 나가는 것도, 항상 웃으

면서 들어대기 때문이다. 잘 들어대는 사람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다. 윗사람도 자기일만 칼같이 처리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자부 들어미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에서 유머교육이 필수인 시대다. 유머를 통해 고정 관념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타고난 말재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현실에 대한 타격이나 해안 이 없다면 무릎을 치게 만드는 유머가 나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남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품성이 없다면 남들의 답답함과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유머를 통해 상대를 재미있게 해주면 친구의 마음을 열기 때문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상대방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웃음의 힘은 위대하기에 그 웃음을 통해 자신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신이 복이 없는 이유는 안 웃어서 그렇다. 복만 오는 게 아니라 웃으면 힘이 온다. 스스로 잘 웃고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매사에 더 창조적이다. 유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스킬이다. 웃음이 터지는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누구나 멋진 유머리스트가 될 수 있다. 백 마디 설득에도 끄떡없는 상대방을 한 마디 유머로 쓰러뜨릴 수 있다. 별것 아닌 얘기로도 폭소를 끌어내는 사람과 아주 긴 얘기로도 시베리아 별판을 만드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지침으로 먼저 웃고, 먼저 망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기본을 지켜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인사와고,

웃어주며, 칭찬하자”

정말 웃기만 하면 잘 된다. 웃다보면 행복해지고 슬픈 일 괴로운 일은 웃어넘기고, 기쁜 일 좋은 일은 두 배로 즐길 수 있다. ‘재는 왜 나보고 인사 안 해’라며 뽀뽀하게 굴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인사와 내가 먼저 웃어주며, 내가 먼저 말 걸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하자. 그러면 자신의 기분이 더 좋아진다. 분명 남은 장사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에서 YES, NO로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늘 중요하다. 신기하게 모든 답을 YES로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대화법에서도 나의 대답에 내 싫편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늘 긍정적인 대답을 하며 살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학술기고 '칠성대'로 보는 제주 원도심의 중요성과 제주인의 삶의 공간 소고

별자리 활용 성내에 조성돼...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을



김 태 일
건축학부 교수

현재 노후화와 공동화로 인해 도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제주시 무근성, 칠성동,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은 과거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뉴타운개발로 인해 지역사회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희망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손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지역이 지닌 제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그만큼 큰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속에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이를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모색하려는 의미있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바로 칠성대의 위치규정이다. 제주 주정은 탐라개국 이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줄곧 탐라의 수도로서 역사·문화·행정 산업의 중심지가 돼 왔던 지역이다. 따라서 주정 내에 산재해 있던 유적들은 제주의 역사와 선인들의 정신, 자취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정 내에 존재했던 칠성대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중보 탐라지」 「파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칠성대의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보 탐라지」 「파한록」등에서는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인 위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리조건을 고려하여 Arc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보았다. 그림1은 위치분석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문헌에서 파악하였던 위치의 분포 형태가 비교적 뚜렷한 형태의 복두칠성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개의 별자리로 구성된 복두칠성은 주극 형태의 4개별, 자루형태의 3개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주극에 해당되는 첫째별과 둘째별은 북극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첫째별과 둘째별의 거리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5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북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Arc GIS를 이용하여 칠성대분포상의 첫째별과 둘째별 거리를 산출하여 북극성에 해당되는 삼성혈과의 거리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대략적으로 6:1의 비율을 나타냈다. 물론 이들 수치는 보다 정확한 칠성대 위치가 파악된다면 달라질 수 있는 수치결과이지만 대략적이지만 당시의 측량기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즉 거의 복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응용하여 의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림 1. 「중보 탐라지」와 「파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칠성대의 위치(주·행정구역은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의 옛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표시한 것임)

치규정을 통해 칠성대의 위치가 보다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분석에서 적용한 장소가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인접한 주변장소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한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치가 정확한 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보다는 분포의 기본형상이 복두칠성과 북극성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무한한 미지의 세계인 하늘과의 소통이라는 희망과 중심의 세계관 위에 행정중심이 아닌 주민생활공간과 자연 순응의 삶의 공간을 계획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 역시 GIS를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칠성대의 위치를 규정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칠성대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접근을 통해 정확한 장소 규정과 칠성대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칠성대가 산재해 있었던 제주 성안은 탐라 역사문화의 발상지로 탐라국-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 역사·문화·경제·사회·행정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제주개발

등 신시가지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인구와 취락의 급속한 이동으로 원도심의 쇠퇴, 상권의 침체, 주거환경의 열악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반면 '문화의 세기'를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도심 활성화방안과 연계한 활용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중보 탐라지」 「파한록」 문헌에 의한 칠성대 위치와 실제 별자리의 위치 비교

“칠성대가 산재했던 제주 성안은 탐라 역사문화의 발상지

1980년대 이후 신시가지 개발로 원도심 쇠퇴와 상권 침체 불가피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은 날로 증가”

는 탐라사회의 초기 형성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전해 내려 온 제주역사의 핵심적 유적으로 인식된다.

제주 주정 내에 존재했던 칠성대에 관한 주요문헌으로는 비교적 위치언급이 명확한 「중보 탐라지」 「파한록」 등이 있으며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인들이 칠성대를 설치한 의미와 위치를 조명함으로써 과거 제주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삶의 공간적 철학을 파악하고 이를 현대사회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정신을 계승하면서 아울러 역사·문화 자원으로 보전과 활용이라는 측

그림2는 「중보 탐라지」 「파한록」에 의한 칠성대 위치를 바탕으로 실제 별자리의 6번째 위치를 북극성을 삼성혈의 측방향에 배치시킨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문헌에 의한 칠성대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실제 별자리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 북극성에 해당되는 삼성혈과는 다소 거리상의 오차는 있으나 방향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으로 칠성대의 위치를 규정하여 보았다. 「중보 탐라지」 「파한록」 문헌에서의 언급 장소와 실제 별자리와의 비교에 의한 위

김창인 회장 실천철학 ‘천지대자연오륜공경탑’ 제막식

조상의 얼 되새기는 성지로 조성... 야외 교육 장소로도 활용

“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

김창인 회장(83·오사카 거주)의 실천철학을 기리기 위한 ‘천지대자연오륜공경탑’ 제막식이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거행됐다. 대학이 주체가 돼 조상을 공경하자는 뜻을 담은 공경탑이 세워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허항진 총장, 최태희 부총장, 이창의 재일제주인센터장 등 학내 인사와 강창일 국회의원, 김상오 제주시장 등의 인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허항진 총장의 기념사 낭독과 김창인 회장상 수여, 공경탑을 공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경탑에는 재일제주인센터 설립의 최대 공로자인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이 담겨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개최한 <실천철학> 출판회에서 ‘천지신명과 조상의 덕을 강조하고, 부모·형제·가족 간의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경탑은 김 회장의 이러한 ‘효(孝)’ 사상에 바탕을 둔 실천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천철학에는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를 비롯한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 공경탑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도내 최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천지대자연오륜공경탑’ 제막식 행사를 하고 있다.

초로 조상을 숭배하는 탑이라는 점이다. 공경탑은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제주대 부지에 지어졌으며, 그 곳에는 김해 김씨 일가의 묘소도 함께 이장됐다. 공경탑에는 김해 김씨 일가의 조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효’에 대한 의미를 되새리는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대는 이 공경탑을 김해 김씨 일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개방한다.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이 조상들의 일을 되새기는 성지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경탑에 대한 내용은 재일제주인센터를 통해 학생과 도민들에게도 홍보된다. 공경탑의 의의와 설립취지, 현재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책자와 표지판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제주대는 이 공경탑이 세워진 부지를 야외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교양과목인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와 『닥치고 정치』의 비교

‘雅’는 ‘俗’보다 우월한가



Micheal J. Sandel 지음
『정의란 무엇인가』



김어준 지음
『닥치고 정치』

『정의란 무엇인가』(Michael J. Sandel)와 『닥치고 정치』(김어준), 두 책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당연히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것이다. 필자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정치학 전공자도 아니니 그 내용이 비교대상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최근 중국의 무협 소설가金庸(金庸)의 작품에 관해서 ‘문학의 아(雅)와 속(俗)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지식인과 엘리트들 등 당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문화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즐기는 것이 ‘아’라면 그보다는 훨씬 대중적이고 주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저급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 ‘속’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속’은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평가는 주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훈련된 사람들만이 글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대중들은 글보다는 소비라는 행위로 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필자는 책을 ‘아’와 ‘속’이라는 관점으로 비교해보고자 하며 이를 서평으로 삼고자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의 화려한 이력과 지위를 보면 이는 분명 ‘아’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닥치고 정치』의 저자의 이력과 책의 내용, 표현방법을 보면 이는 분명 ‘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역자의 말대로 ‘해괴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의’를 찾는 지적 유희’이다.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제러미 벤담 등 서양 철학의 개념과 주요 철학자들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러나 책을 읽다보면 그 집요함에 질리게 되면서 몇 가지 책 밖의 의문은 불쑥하게 된다. 이들 극단적인 상황들-고장난 전철, 난파선 등등-을 우리가 얼마나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이 책에서 정해준 기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 말이다.

사실 필자는 이 책에서 거부감을 먼저 느꼈다. 미국인과 정의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 때문이다. 그 거부감은 책을 읽다 보면 곧 현실화되고 책의 마지막까지 지속된다. 제1강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상황과 제9강 오스트레일리아 비판을 보면, 샌델의 고민 방

향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다. 샌델이 고민해야 할 것은 미군과 아프가니스탄의 소년의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것이 정의로운가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호주 정부의 원주민 정책을 비판하기 앞서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학살을 먼저 사례로 들어 정의를 따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샌델은 단순히 미국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아룩해놓은 최고의 대학에서 미래 인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인 것이다. 그가 논해야 할 것은 일개인의 미시적인 ‘해괴한 경우’의 정의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의여야 한다. 그래야 정의롭다.

『닥치고 정치』의 힘은 ‘속’의 힘, 즉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저자 김어준은 독자를 잘 안다. 취업 광풍과 영상문화라는 독서의 절대적인 적들에 매몰되어 있는 요즘 20대들에게 활자로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힘이 그에게는 있다. 독자의 눈에 맞게, 서면이라는 장벽을 넘어 구어로 책을 쓰는 감각 말이다.

또한 저자는 ‘무학(無學)의 통찰’이라고 겸손해한다. 현실 정치인들이 쓴 단어 하나 혹은 사소한 보이는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그의 통찰은 결코 알지 않다. ‘무학’이라 하나 ‘유학(有學)’임이 분명할 샌델의 통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다. 당연히 현실 정치에서 20대의 정치 참여라는 결과로 이는 입증된다. 심지어 『닥치고 정치』가 구어 일체임을 보면, 구어와 서면어의 길항관계라는 것이 20세기 초반 중국이라는 한정된 사공에서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상존하는 문제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독자가 외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아무리 좋은 보이자라도 마시는 이 없으면 낙엽에 불과한 것처럼, 또한 책 읽지 않는다는 비난, 그것이 독자에게만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덕분에 깨닫게 된다.

결국, 두 책은 ‘아’라고 해서 무작정 떠만들어도 안 되고 ‘속’이라고 해서 읽어보기도 전에 저급하다 예단하는 것이 큰 실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흥선 중어중문학과 교수

재일제주인 관련 수업과 연계하거나 재일제주인센터 교육 프로그램 장소로 쓰인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삶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재일제주인센터와 실천철학의 대표적인 예인 공경탑을 함께 활용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잊혀 가는 조상을 공경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창익(일어일문학과) 재일제주인센터장은 “이 공경탑은 유교 사상에 깃들여 있는 오륜을 실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공경탑을 세운 의미는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는 윗사람에 대한 공경 문화를 다시 제정립시키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김동욱(회계학과) 경영사업단장은 “김창인 회장은 기업의 기부 문화에도 앞장서신 분”이라며 “공경탑을 통해 기부문화 뿐만 아니라 효 사상에 대해서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발전기금 기부는 지난 2008년 3월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기금으로 현금 30억원을 제주대에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또 2008년 8월 재일제주인센터 교육프

로그램 개발비로 현금 5억원을 기부했으며 2010년 9월 현금 100억원을 쾌척했다.

이와 함께 재일제주인센터가 포함된 문화교육관 공사비 중 외부 적색 화장실 변경 비용 6억5000만원도 기부했다. 현재까지 낸 발전기금만 141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929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에서 출생해 해방 직후인 1946년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일본에 도착하고 제일 처음 오사카의 친지를 찾아가 자전거 수리를 배웠다. 5개월 후 도쿄로 향한다. 도쿄에서 통제품 장사를 거쳐 결혼과 함께 다시 오사카로 돌아와 구두사업에 뛰어들었다. 구두사업에 전념하던 중 간병원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회장은 6남매와 부인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기적처럼 회복됐다. 이는 부인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이었다고 김 회장은 회고하고 있다.

현재 김 회장은 오사카 소재 남해회관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헌법에 특별자치제 규정해야 통일 후 대처가능

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연구
- 통일 관련 헌법조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권영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 성과는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구하는 특별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 제8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한계를 헌법해석론적 관점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과 재산관리권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1962년 헌법개정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며, 종래의 규정보다 자치권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엇이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이며 무엇이 국가적 사무인가, 즉 사무배분의 헌법적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법률유보), 또한 이 경우에 의회입법의 원칙(의회유보)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셋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기관은 입법자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어떠한 원칙하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제강도를 가지고서 심사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통일에 대비한 특별자치제의 도입

헌법에 특별자치제를 규정하고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남북통일 후 변한 정치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통일에 대비한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특별자치제 실시가 가장 근접한 대안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에 더욱 세분화된 조문들을 명시해야”

같이 통일을 위해 우리의 국가체제를 연방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흡수통일을 이룩한 서독의 국가형태가 연방 국가였다. 물론 통일 후 재산권과 신택청등 관한 법률 등 한시적인 연방 법률에 의한 구 동독지역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지원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법제는 연방제의 틀 안에서 제정된 지방 법률들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연방제에 관한 합의도 지금 현재까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특별자치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통일 후가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으로 특별자치제의 실시가 가장 근접한 대안

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연방제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가 바로 북한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가능성과 제도를 마련하기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특별자치제이다. 만약 헌법에 특별자치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갑작스런 통일이 오더라도 국회에서의 특별자치제의 실시에 관한 의결과 한시적인 법률만으로 갑작스런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자치제의 실시는 지방분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통일헌법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에 대비한 특별자치제의 실시도 면밀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부터 특별자치제에 대한 실험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이름에서부터 조직까지 특별자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역사적인 환경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고, 우선 실험지역으로

주의 자치권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를 개선하고 분권적 원리를 우리나라 헌법에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권적 원리를 내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자립적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일거에 분권적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치권 보장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인정되는 제주지역부터 실질적으로 분권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국가 내부의 체제를 보다 분권화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분권적인 통치원리를 도입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있을 헌법개정과정에서는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들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조문만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부족한 점이 많아 보다 상세하고 세분화된 조문들로 확대·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학계에서도 지방자치 조항들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다.

또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의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기본권 제한 법률주의 등의 원칙과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논의 될 수 있다. 위의 중요원칙외의 사항들은 법률에서 규정하면 될 것이며, 위에서 예시한 조문은 현행 헌법의 기본 틀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위의 원칙들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춰 조문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후 남북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통일헌법의 제정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한 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공간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의 형태를 취하여 왔으므로 통일 후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고, 남북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통일 후 새로운 헌법의 제정 시비를 없애고,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편입될 국민들의 여론을 배려하고, 새로운 조국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 상징적으로도 새로운 헌법의 제정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통일이 되는 경우, 남북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헌법제정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제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9> ‘요양크루’ 정제환씨

관광객이 찾는 건 ‘제주다운 것’

“제주사람들은 제주를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제주사람들을 보면서 반감으로 제주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제주에 온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주를 여행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제주도 문화와 사랑에 빠진 ‘요양진’ 부산 사나이가 있다. 바로 정제환(문화조형디자인전공 08학번) 동문이다.

그는 같은 전공 황혜진(09학번), 류민우(06학번)와 함께 ‘요양크루’라는 팀을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 먹는 음식, 술 먹는 곳, 노는 곳, 쇼핑하는 곳, 취미생활 등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싣고 있다. 또 제주도 문화인들을 만나 인터뷰도 한다.

“저희가 하는 활동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제주도 젊은이들이 도시에 대한 환상보다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사랑하며 자긍심을 느꼈으면 해요.”

제주도 문화를 찾아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공벽화그리기 등도 기획하고 있다.

특히 팀 이름에서 ‘요양’은 제주도 사투리 ‘요망지다’에서 가져왔다. ‘요망지다’는 ‘아무지다’, ‘똥통하다’는 뜻이다. 제환씨는 제주도 젊은이들이 좀 더 요망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제주도 젊은이들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문화를 따라한다. 반면에 제주도 젊은이들만의 참신한 게 없다.

“저녁에 시장에 가서 주점에 가는 일 밖에 젊은이들이 노는 방법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찾아보면 분명히 제주도의 젊은 문화는 얼마든지 있어요. 계속 찾아야죠.”

제환씨는 제주도사람들이 변방의식에 빠져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라는 속담처럼 제환씨는 제주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제주를 벗어나려는 의식이 제주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제주도는 문화 낙후지역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주도 사람들이 자꾸 남의 뻥만 쳐다봐서 그렇지 제주도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오름탐사, 배낭여행, 자전거 오토바이로 많이 여행하는데 기억 하나하나가 모두 좋았어요.”



제환씨는 아직도 제주도 공부중이다. 그의 책장에는 제주도 관련서적이 많이 꽂혀있다. 제주도의 옛 모습 등 제주도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책이다. 여행했던 곳의 옛날 사진, 돌아르방, 옛 제주도 풍경사진 등을 보면 신기하다. 이제는 오히려 제주도 문화 등에 대해 제주도 사람들이 제환씨에게 물어볼 정도다.

제주도 문화를 사랑하는 제환씨지만 제주도 문화에 대한 아쉬움도 많다. 제주도 문화의 단점은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시도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관광스타일은 달라졌는데 제주도 관광은 제자리예요. 음식 점, 박물관, 축제, 숙박집... 촌스러워요. 특히 축제를 가보면 축제가 거기에 서 거기죠. 축제에서 젊은이들만의 열정을 찾기 힘들어요.”

제환씨는 일단은 제주도 젊은 세대들의 문화 찾기가 중심이지만 어른들 세대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제환씨는 대학시절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등에서 상을 받는 등 우수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대학 동기들이 모두들 취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요즘, 제환씨는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는 Island Design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세웠다. 디자인을 통해 제주도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소설 어린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인제나 이방인처럼 두근거리면서 제주를 여행하고 싶다는 그. 어린왕자 제환씨는 오늘도 제주도라는 별 어딘가에 숨겨진 샘을 찾아 떠난다.

김명지 기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특혜’ 기고에 대한 반론

제주에 투자한 합법적인 사업도 과연 특혜인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팀장은 지난 5월 9일자 제주대신문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특혜이며, FTA를 이용한 미국기업 등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제주도 특별법과 지하수 정책 및 물산업 등에 근거해 보았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공항 직원으로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반세기 동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여 그 가치를 높여왔다. 1995년도 제주도의회에서 도지사가 한전에서 제주도 물을 홍보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규제가 묶여서 시판하지 못하고 지내왔다. 특혜가 아니라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다. 특혜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 속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었으며, IMF 금융위기 시기에는 생수사업만으로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여 계열사에

합병당하는 희생을 감내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투자하여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특혜라면 현재 제주도에 진출한 모든 대기업들도 특혜라고 비난해야 할 것이다. 법을 준수하면서 규제에 묶여 제대로 사업도 못해온 것이 특혜인가?

둘째, 지하수를 이용하여 사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내·외기업을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 지하수를 98%까지 이용하여 개발된 음료 제품은 7가지나 되며, 일부는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외부 대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제주맥주’도 조만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며, 제주도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리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주류, 음료제조업, 목욕탕, 온천, 호텔 등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먹는샘물사업만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인지 근거가 없다. 단순히로 공기업은 공익이고, 사기업은 사익이

라는 관점에서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사기업도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공적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먹는샘물사업이 지하수를 사유

는 제주도지사의 허가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 허가를 받고 있으며, 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한국공항 먹는샘물사업 역시 제주도로

“수많은 기업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왜 먹는샘물만 공익성에 위배되는가?

미국 국내법과 FTA 조항과의 관련성은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화하여 공수화 정책에 위배된다고 평소에도 주장해왔고, 이번 글도 그런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예전에 지하수 사유화 시대가 있었으나, 특별법 제정 이후 사유화 시대는 끝이 났다. 사유화된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지하수

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 특별법 부칙33조(“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법 312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만 가지고 지하수 사유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지하수관리법과 제도, 정책에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동주 팀장은 FTA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공항의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기업들이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나서 ‘먹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라 생각한다.

물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검토도 부족하다. 미국 기업이 ISD를 이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정부의 협정위반이고, 둘째는 미국기업의 경제적 손실이다.

먼저 협정위반이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제3의 기업은 제주도에 먹는샘물사업을 하기 위해 진출할 수 없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미국기업도 진출할 수 없다.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제주도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협정위반이 아니다. 설령 미국 국내법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제주도특별법개정을 요구한다 해도, 미국 국내법과 FTA조항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그럴 수 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미국기업이 제주도에 투자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야 ISD를 이용하여 제소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특별법의 제한 규정을 알면서,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

할 기업은 없다. 설령 투자를 강행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정부의 협정위반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제소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미국기업이 제주도 먹는샘물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기업이 ISD를 제기하더라도 그 근거는 제주도특별법상 제주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의 합리성과 타당성 유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공항의 증량 허가가 미국기업의 ISD 제소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공항의 합법적인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공항은 오래전부터 제주위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제주도위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홍보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증산에 따른 도민고용 확대, 이익환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지하수 보존을 위한 연구활동, 제주도 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겠다는 고도했다.

제주도 지하수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치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와 상생 발전하는 모델이 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정희홍
(한국공항주식회사 제주사업팀 처장)

무문유설



천 영 수
경영학과 교수

오전에 도서관에서 빌린 ‘언어학 개론’을 펼쳐놓고 한가한 금요일 오후를 즐기려던 참에,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고교동창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나 OO야, 지금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심포지엄에 참석중인데, 너 어디 있니?”

고교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대학교 교양과정 중에 같은 캠퍼스를 쓰는 바람에 몇 번 만나고, 그 후에는 가는 길이 달라 멀리서 소식만 들던 친구가 뜬금없이 보잔다.

막 몰입한 책을 내려놓으려니 다소 서운했지만, 행사장으로 향했다. 환한 미소를 짓는 친구와 40여년 만에 나누는 악수는 즐거웠다. 발표자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후원자로 참석한 것이니 시간이 많다는 친구와 함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의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죽 학교에 있었으니 어떻게 지냈는

지 뻔하고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인데, 너는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 봐라”는 내 말은 친구의 다양하고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라는 쿡가 되었다.

고교 시절에 같이 젊었고 지금도 비슷하게 늙어 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긴 세월 동안 지낸 생활은 판이하게 달랐다. 가히 충격적인 정도였다.

일하던 회사가 속한 그룹이 IMF로 망하는 바람에, 그 당시 근무하던 유럽의 해외법인인 국제미아가 된 상황에서 회사를 2년간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600여 명의 현지종업원들도 망할 회사라고 체념한 상황에서 3년 만에 회사를 정상화시켜 놓고 그 회사를 떠난 후, 국내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합작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수조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규모로 성장한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맡은 사장직을 내놓고 이제는 부회장으로 있으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많았다. 열심히 일했으니 업무에서 성공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나를 놀

라게 한 것은 여가시간도 열심히 즐기는 정 열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지금 3년째 철인경기에 참가하고 있는데 메달권이란다. 기타와 노래를 즐겨 종종 복지시설에 가서 공연하고, 댄스도 제법해서 얼마 전에는 공개 공연을 하고, 골프는 싱글 정도, 부부가 같이 하는 활동으로서 매 주 음악회에 참석한다. 영어는 물론 불어도 회화가 가능하고, 일본어와 중국어는 업무상 필요도 했지만 별도로 노력하여 빠른 회화는 물론 강연도 한다.

이 친구에게 “왜 그리 이것저것 죽자 살자 하는 거니?”하고 물었더니 재미 때문이다. “그런데, 영수야, 골프도 재미 있고, 춤도 재미 있고, 노래도 재미 있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재미 있지만, 그런 건 다 잔 재미더라. 정말 깊은 재미는 일하는 것이더라.” “일의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있는 거니?” “일은 어렵잖나. 일을 하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실제로 극복하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는 것 같아.”

심포지엄이 끝나 우르르 물려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연찬회에 빠지듯 곤란하다는 친구와 헤어져 사무실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평생 일만 했다고 억울해 하며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일이 가장 재미있다니 그것도 좋은 생활자세일 수 있겠다.”

퇴직 후의 무한한 자유에 기대를 걸며 일터를 떠날 채비를 하면서도, 한편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하는 자문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나는 대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찾지 못했다. 오늘 친구가 내게 그것을 주었다. 내가 본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 경제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 중 하나인 이 친구를 모델로 소개하고 싶다.

오늘의 대학생들이 훗날 각자의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좋겠다.

“일이 가장 재미있더라.”

기자칼럼



김 동 현
언론홍보학과 2

최근 해군기지와 관련한 이야기 도중 ‘도 내에서 시위를 할 때 100명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타지방 출신인 기자는 이해가 안 갔다. 기자가 나고 자란 울산의 경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하던 참여자가 2000명이 넘는다. 또 일반적인 정치 시위도 시청 앞에서 열리면 1000여 명 이상 참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조금씩 가기 시작했다. 4·3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도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열리는 각종 시위에는 참여자가 적었다. 해군기지만 하더라도

사회현안에 청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자

이제까지 열린 시위에서 200여 명이 넘는 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과거 때문에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시위에 강정 주민들과 사회 운동가 및 시민단체 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회운동가나 시민단체는 도의 사람을 위주다. 즉 도민의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보수 단체들은 ‘제주 도내 사람들이 반대 안하는데 도와 사람이 안보 정책을 방해하느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의견에 밀려 처음 해군기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던 도의 사회운동가, 시민단체들도 점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이렇듯 도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 정부는 제주의 문제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해군기지의 강행 공사뿐

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 개정도 미적미적 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마을은 매일 공사강행과 씨름 중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법이 제대로 제정이 안 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수입은 필요한 금액에 25%밖에 벌지 못해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도민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주를 바꿔나갈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지 위해 도와처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이 중심에는 대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 중·장년 세대 이상은 4·3의 아픔 때문에 의견을 내놓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도내 사회 현안에 대해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고쳐 나가자. 뒤에서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쫓기 마련이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나서야 한다.

도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면서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 가만히 있는 중·장년층이 나서기보다 젊음의 패기를 보이자. 그래야만 사회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사회는 알아서 바뀌지 않는다.

소통해라. 소통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다. 자신의 목소리로 내지 않으면서 유명인들에게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할 자격은 없다. 자신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씩만 관심을 기울이고 침묵에서 벗어나자.

독자기고



고 윤 미
간호학과 1

제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제주대학교는 많은 발전을 했다. 그러면서 육지부 학생들이 학업을 하러 오는 학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 학생 뿐만 아니라 터빈을 쓴 아랍국가 학생, 검은 피부색을 가진 동남아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해가 지날수록 외국인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사회인과 대인관계’ 수업에서 정순여 교수님이 팀 과제를 내주셨다. 팀 과제는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팀은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서 현재 겪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물어보고, 우리가 해결해 줄 방법을 찾기로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외국인 학생은 미국인

도노반 (생활환경복지학부)씨였다. 도노반씨는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언어라고 했다. 꾸준히 공부를 해도 역시 한국어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도노반씨가 문화 차이를 느낀 부분은 스킨십이나 한국과 미국간의 대문화차이, 관계를 맺음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대학에서는 과 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积极参加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를 초면에 만나더라도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파티문화가 보편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파티문화가 거의 없다. 그리고 끼리끼리 어울리려는 문화가 강하다.

그래서 과 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중요하다. 도노반씨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과 활동과 동아리활동에积极参加하는 한국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친구에서 연인으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 보편적이나 미국은 또 그렇지 않다고 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별 것 아니지만 다른 문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차이를 알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화의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도노반씨는 한국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대학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국에서 온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도와준다면 타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도움을 받았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과 제주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먼저, 언어 학습을 도와줘야 한다. 제주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멘토 조직을 만들어 지원하고, 한국학생들은 그 단체에 참여해 남는 시간을 이용,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학교는 교제와 같은 작은 지원만 하면 된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에 더 잘 적응 할 수 있어서 좋고, 한국 학생들은 타국 학생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다.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학생들이 제주대를 좀 더 사랑하도록 만들 것이다. 좋은 인상을 가진 외국인 학생들은 각 나라에서 성공하고 제주대를 더 널리 알리게 된다. 그럼 좀 더 글로벌한 제주대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양 연 재
초등교육과 국어교육전공 3

한 해 동안 매우 다양한 성격의 학교행사들이 있지만 도의답사만큼 기억에 오래남고 많이 배워가는 행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는 2박 3일의 도의답사는 책 속에서 얻는 배움과는 또 다른 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교육대학 국어교육전공 학생들이 참가한 도의답사는 전라남도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여행이었다.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가는 교통편은 배였는데,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이제껏 배를 가장 길게 타본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한 나는 3시간이나 배를 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며 또 한편으로는 멀미를 하진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출항하니 멀미는커녕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 금세 3시간이 지나 있었다. 완도에 도착해서 전북쪽으로 든든히 점심식사를 한 뒤 우리들의 도의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들꽃과 나무, 바다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던 해남의 땅골 마을에 갔다. 또 평소 먹던 음식과는 묘하게 달랐던 짬 음식도 맛보고 예뻐도 드리고 산사에서 차분하게 마음을 다듬을 수 있었던 미항사 템플스테이도 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멋있다

또 TV로 보기만 했던 갯벌에 들어가서 온 몸이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꼬박을 쾅쾅 밟고 갯벌 체험장에 갔다. 짜짜구 선생님과 같이 거닐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짧아서 아쉬웠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광주 예술의 거리를 지나갔는데 지금도 머릿속을 천천히 흘러 지나간다.

이번 도의답사를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신의 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멋있다는 것이다. ‘스님’으로서의 하루하루를 감사해하며 의미 있게 보내고 계셨던 금강 주지스님, 웃음이 번지는 얼굴로 갯벌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갯벌 아저씨를 만났다.

또 밤이든 낮이든 길고 짧은 거리를 안전하게 운전해주신 기사아저씨와 국밥 한 그

릇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던 국밥집 사장님 내외분 모두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반복되는 일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또한 나는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게 되었다.

도의답사는 끝이 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교육대학 학생이자 예비교사인 나는 좀 더 힘찬 발걸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내 일을 사랑하고, 일상에 지쳐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동문칼럼

모험과 도전이 없다면 성공도 없다

몇 년 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중동과 유럽에 이어서 최근 그렉시스(Grexit)라는 그리스와 유로존 탈퇴를 뜻하는 한 마디에 세계 경제는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비판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위기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기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난 27년 동안 기업에서 종사하면서 깨우친 사실은 호황 속에서도 불황은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 즉 불황은 곁에서 함께 해왔으며 오히려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항체를 키워주는 면역체였다. 그러므로 위험한 환경은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불황은 미래의 호황 준비하는 때

불황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는 기사가 연일 등장하고 일부 대학생은 아예 취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들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기업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에 처해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쓸 만한 인재(人才)’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는 문자 그대로 인간재목(人間材木)이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인재를 말할 때 ‘열정이 있고 성실하며 소통능력과 협조성이 뛰어나다. 업무에 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태도를 지니고 있기에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취적인 직업의식, 투철한 정신 및 태도를 지닌 인재들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말하는 점에 후배들은 주목해야 한다.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이력을 보면 놀랄 수 정도로 화려하다. 하지만 기업에서 환영받는 신입사원에 대한 유형을 한 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각 기업마다 개인을 바라다보면서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같이 화려한 스펙으로 포장된 대학생들이 과연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언어구사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그 역시도 이미 준비된 답변이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난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업마다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과도한 스펙으로 포장된 취업준비생들을 보면 마치 백화점에 화려한 포장지로 둘러싸인 쇼윈도 진열 상품과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쇼윈도의 상품이 사람들의 눈에 띄듯이 이런 취업준비생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스펙만을 보면서 그 지원자를 인재라 판단하는 면접관과 기업은 없다.

취업준비생들이 쌓은 스펙의 내용은 대부분 붕어빵처럼 대동소이하다. 도무지 차별화한 점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동족사 이죽생(同鄕死異鄕生)’이란 말이 있듯이 남과 똑같거나 평범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근한 예로 남보다 적게 자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남보다 두 배 이상 노력하지 않는 한, 지방대학생으로서 다른 경쟁자들과의 진검 승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열심히 목숨 걸듯이 공부한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생각하기엔 뛰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무조건 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신입사원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진짜 스



김 경 호
사회학과 79학번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장

팩은 바로 열정과 도전정신, 인내심, 성실성, 창의력, 소통능력, 윤리의식 그리고 사명감이다. 그래서일가. 면접과정에서 인재로 분류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공통 성향이 발견된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이며 어떤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준다. 결국 인재가 되기 위한 DNA는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력, 그리고 마르지 않는 열정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평권호’라는 말이 있다. 평권들은 밤산 끝에서 모여서 눈치만 보다가 그 중 어느 한 마리 평권이 바닷물로 뛰어들면 나머지 평권들도 한꺼번에 바다로 뛰어든다. 이는 백화점 고객들에게도 나타난다. 제품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은 한 고객이 앞장서서 구매를 하게 되면 갑자기 그 상품 앞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이런 유형을 나타내고 있어서 염려가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차별화 시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원한 해당기업에서 ‘자기 자신을 뽑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몇 가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분명히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자신을 차별화’를 시켜야만 취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매일 매일 그저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남이 하니까 무작정 똑같이 따라가는 부하녀동형 지원자들은 미안하지만 반드시 실패한다.

비록 바다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바다사자(위협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그 같은 모험과 도전이 없다면 성공이란 열매도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에이브러햄 링컨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신께서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며 항상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링컨은 언젠가는 찾아올 기회를 대비하여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했던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준비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이 바로 그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들었고, 훗날 미국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존경받는 리더로서 성공했던 것이다.

이처럼 기회를 준비하는 자만이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하는 것들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고 실력이라면, 불려 나오는 것은 기회이며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의 열정과 패기만은 절대 잃어서 안 된다. 진정한 젊음은 어려워진 환경이나 시대를 절대로 탓하지 않는다. 더구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젊음이 있기에 자신에게 처한 난관이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어려운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뜨거운 정열 또한 젊은 청춘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장점이 라고 믿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 연출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기획하고 치밀하게 성공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90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 열정이 있다면 젊은 청춘을 사는 것 이다. 하지만 20대 청춘인데도 열정이 없다면 그는 노인이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렇다. “도전하지 않는 삶,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

평범한 직업은 가려!
나만의 이색직업으로
인생을 즐긴다

“마을은 우리 삶의 토대조”

마을만들기 활동가
지금 씨



“마을은 삶의 토대입니다. 특히 농촌마을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마을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력이나마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씨(51)씨는 낙후된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마을만들기 활동’이다.

지씨는 그간 NGO 문화단체인 ‘문화연대’, 시민사회세력 ‘미래구상’ 등에서 활동해 오며 명성을 쌓았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 표선면 가시리에 정착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가시리에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했다. 조랑말 박물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센터, 문화학교 등 마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현재는 가시리에서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의 자문을 맡고 있다.

이 중 조랑말 박물관은 지씨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인 (주)이에도사에서 위탁 운영기로 하고 현재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한 유물 전시보다는 움직이는 박물관,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해요. 승마장과 캠핑장도 갖추고,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를 치료하는 홀스테라피 등을 준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방문객도 늘리고자 합니다.”

그가 가시리에 만든 ‘동네가게’ 역시 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가게 안에 제주도 중소기업이나 동네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종의 작은 경제·착한 소비를 마을 단위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씨는 색달동의 중요한 수원인 샘솟을 일대를 생태문화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등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우리 삶의 근거지인 마을의 중요성을 알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업을 보다 창조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화려한 직업만 직업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라도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조금은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 많아요. 그런 것을 찾고 고민하면 진로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탕없는 다양한 수제잼 팔아요”

‘미스터 잼’ 대표
배필성 씨



배필성(38)씨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수제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수제잼 전문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배씨의 가게 ‘미스터 잼’이 최초다. 딸기, 블루베리는 물론 키위, 피망, 당근, 오이, 파프리카까지 배씨의 손을 거치면 모두 달콤한 잼으로 재탄생한다. 관덕정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에 들어가면 이 모든 잼들을 직접 시식도 해볼 수 있다.

“가게를 차리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정도를 강화하고자 했죠. 오이잼 같은 경우, 이름만 들으면 꺼려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맛을 보신 후에는 반하시는 분도 많답니다. 직접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오프라인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학부시절 배씨는 배낭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일도 여러 곳에서 해봤다고 한다. 마케팅 쪽에서도 일해보고 먹회사, 잡회사도 거쳐갔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난 ‘남들과 다른 시각’이 지금의 ‘미스터 잼’을 탄생시켰다. 잼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수제잼이 활성화된 일본에 시장조사를 다녀오기도 하는 등 수제잼 개발에 열성을 다했다.

배씨의 수제잼의 경쟁력 중 하나는 잼 종류의 다양화다.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잼 종류가 5개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 배씨가 만든 수제잼의 종류는 블로그를 통해 레시피 법을 공개한 것만 해도 36종이 넘는다.

또 다른 경쟁력은 바로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잼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영양도 풍부한 프락토 올리고당을 설탕 대신 사용하고 있다.

“대체당의 원가가 높고, 생산 과정이 오직 수제로만 이뤄지다 보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청정 이미지를 강화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어요. 제주가 청정 이미지에 걸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이곳에 첫발을 내딛게 됐죠.”

그가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는 학창시절 공부나 취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았죠. 특히 배낭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접하고 겪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안목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많이 부딪쳐 보고, 많이 겪어보고,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소셜마케팅 통한 소통 꿈꾸죠”

소셜 디자이너
김두혁 씨



김두혁(36)씨는 본인의 직업명을 ‘소셜디자이너’라고 이름 붙였다. 소셜네트워크가 국내에서 활성화된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관련 직종에 대한 명칭조차 정식으로 확립된 게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는 일은 ‘소셜마케팅’, 즉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에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처음 소셜네트워크를 접한 건 2008년 호주에서였어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데에 큰 흥미를 느꼈죠. 그러던 중 꼭 사람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라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팬북으로 제주도에 온 그는 막연히 꿈만 꾀었던 소셜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도전을 감행했다.

“SNS를 이용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홍보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을 보고 망설임 없이 과감히 지원했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결과 관광객도 늘고 전국 우수시장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어요. 이때의 경험을 계기로 소셜마케팅 쪽에 정식으로 나아가야겠다 마음먹었죠.”

그가 명명한 ‘소셜디자이너’는 단순히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업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담아내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내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셜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마케팅 분야의 기존 직원이 추가로 소셜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죠. 이는 ‘소셜(사회적)’보다 ‘마케팅’에 우위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에 앞서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통해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본인의 경우처럼 매사에 자신 있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생은 아직 젊잖아요. 조건은 잠시 뒤로 하고, 무슨 일에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좌절도 겪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떤 댓가를 주고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되어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철학상담 통해 사유능력 길러줘요”

철학 상담가
이길주 씨



이길주(53)씨는 ‘철학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철학 상담’이라는 분야는 아직까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사주와 혼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씨가 정의하는 철학 상담가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유의 능력을 길러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직업이다.

“철학 상담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잘 들어주고 정리해 주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하는 철학 사유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죠.”

현재 이씨는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집단상담을 해주고, 예약을 통한 개별상담도 받고 있다. 그는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 시기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씨는 교양과목 ‘논리와 비판적사고’ 수업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요하는 질문을 건넨다.

“서울 매대촌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람 대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다, 철학이 인간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철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여성 수행자들의 출가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쓴 논문들이 지금의 철학 상담의 기초가 됐죠.”

이씨는 일본에서 자그만치 15년 동안 공부했다. 그럼에도 그의 배움을 향한 노력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상담이란 것은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상담해 주며 이씨는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특히 큰 기쁨을 얻는다고 한다.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예로 유망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경우, 그 꿈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지, 주위의 시선 혹은 사회의 흐름에 의해서인지 의문을 던져봐야 해요. 기준이 밖에 있으면 윤행적이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후 차근차근 토대를 쌓는다면 훨씬 능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김소영 기자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